기가 센 여자를 찾습니다!

(아가 6:4~14)

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5.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6.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8.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가 센 여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기가 센 여자를 찾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지위상승에 따른 호감도 변화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는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비호감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지위 높은 여자에 대해 비호감을 갖는 대상은 남자만이 아니라 같은 여자들조차도 비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성공하고 지위가 높은 남자에 대해 호감을 갖는 것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같은 남자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저 여자는 일을 잘하는데 기가 좀 센 것 같다'라는 말들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호감도 변화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두드러진 역량을 보이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굳이 기가 세다는 말을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조금만 남다른 역량을 보이면 기가 세다는 비난조의 말을 쉽게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가 세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어조가 아니기에 들어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을 굳이 기가 세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렴은 기가 센 여자보다야 애교가 많고 유순하고 총명하기까지 하고 사리분별이 명확하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전통적 가치관에서 영리한데도 애교 많고 유순한 여자를 선호하던 사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기가 세지 않은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에 관한 일이라면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엄마의 입장에 서면 기가 약한 여자는 없습니다.
젊은 엄마가 남편은 한국에 남겨둔 채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기가 세다는 말로는 표현을 다 못할 정도입니다. 기가 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하는 점은 바로 무엇에 대해 기가 세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가 세신 분이실까요? 기가 약하신 분이실까요? 기가 약하다는 표현이 애매하다면 온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채찍을 들고 성전정화를 하셨습니다. 또 죄인을 향해서는 온유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드셌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대상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세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도자층을 대하셨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에서 강력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으셨고, 세상을 이기실 정도로 기가 세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엄청나게 기가 센 사람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약자나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대해 기가 약해서 먹히고 정복당한 자들이야말로 타인을 윽박지르며 강한 척을 합니다.

지난 말씀까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거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에 대해 거리를 느꼈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솔로몬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을 찾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

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으로써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다'라는 말이 합당할까요? 더군다나 '당당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 뜻은 '공포 혹은 무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살려 다시 번역해보면 '무적의 군대 같이 무섭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개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보무당당하게 들어오는 군대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누가 감히 무적의 군대에게 전쟁을 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적들을 무섭게 만들고 떨게 하는 기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군이 있었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마치 이러하다는 것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라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르사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왕국의 1~5대 왕까지가 수도로 삼았던 성읍입니다. 북왕국 6대 왕 때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디르사는 수도로 삼을 만큼 아름답고 번창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이곳이 대단했기에 술람미 여인을 향해 디르사 같이 어여쁘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같이 곱고'라는 말도 마찬가지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 보았듯이 현재 술람미 여인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마음에서 솔로몬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상태입니다. 남편을 찾는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기세등등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반항하려는 자세가 아니고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무적의 군대에 비견될 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과의 사랑이 소홀했던 이유는 결혼을 통해 부부관계가 매듭지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은 솔로몬 자신이 아닌 주변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기세가 감히 막아설 수 없는 군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였듯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빼앗을 수 없고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힘으로 마음의 관심거리들을 물리치고 있음을 솔로몬이 느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남자에 대한 여인의 강렬한 사랑을 무적의 군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선민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정서적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서 솔로몬을 잃은 모습은 선민이 하나님을 잃은 모습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을 찾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선민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무적의 군대와 같아야 하고 예루살렘 성과 같아야 하며 디르사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천혜의 요새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무적의 군대와도 같이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모든 대상들과 싸워서 무찔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려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디르사 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사명은 내부의 사람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과 같이 마음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녀나 돈 같은 세상의 가치들에 밀려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선민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관심거리들을 향해 무적의 군대처럼 싸워서 무찔러야 합니다. 기어코 하나님을 의식의 첫 번째 자리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잠시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키고 솔로몬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없으면 죽은 사람처럼 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의식과 생각과 관심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쭐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첫 번째 자리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에서는 사업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처럼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십자가 칼로 쳐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사업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이신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많은 이윤을 남기면 좋아합니다. 이번 달 수입이 전 달에 비해 500%나 늘어났다면 기분이 좋겠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가 형통할 때 좋아합니다.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면 기분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의 어떤 점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본문 5절을 보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무적의 군대와 같은 술람미 여인의 시선이 솔로몬의 시선과 마주치게 될 때에 솔로몬이 이 시선에 장악되고 점령되어서 헤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식의 감당치 못할 사랑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을 때 좋아하는 것처럼, 자녀가 잘 될 때에 기뻐하는 것처럼, 병에서 치료되었을 때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선민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독자까지 번제단에 바치고 20세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주체성을 죽이며 하나님께 나왔던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도 허락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본래 하나님이 살아가시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무적의 군대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말할 정도의 강렬함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을 찾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신과 솔로몬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다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잠시나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솔로몬을 되찾지 못했다면 제3의 관심거리를 위해서 솔로몬의 권력에 아부하는 삶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담았기에, 그 일이 성사되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들쑤시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처럼 마음을 지켜내야만 하고 무적의 군대처럼 무찔러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자녀일지라도 감히 내 마음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쳐내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직장 문제가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 직장 문제를 쳐내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짝일지라도 내 마음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마음의 싸움을 기뻐하십니다. 손발을 움직여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침략하는 것들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기가 센 여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가 센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8~9절에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솔로몬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이외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군대 같이 기가 센 여자가 정작 솔로몬에게는 비둘기 같이 유순하고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는 기가 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장 유순한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숱한 여성들 가운데서도 술람미 여인을 유일한 여자로 여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수식어를 빼면 본래의 사람이 남습니다. 이 본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기세등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비둘기 같이 유순하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깃발을 든 군대처럼 무시무시한 기세로 물리쳐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죽고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 철저히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 자체가 세상에 대해 기가 센 사람이 되자는 구호입니다. 이 세상에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 죽자고 하는데 이보다 더 기가 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외에 대상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가 세고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음의 자리를 결코 세상에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일찍이 목이 곧고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대해 비둘기 같이 유순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돈을 추구하면 똑같이 돈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흥을 좋아하니 목사님들도 부흥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의 기준들에 유순한 비둘기 같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기가 세고 완고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마음에 세상이 눈곱만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가 센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에 사로잡히실까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비둘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오늘도 깃발을 든 군대의 무서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복지가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